

광주시민, 가난해도 큰차 탄다

대형차 비중 광역시중 최고... 소형차는 '꼴찌'

광주지역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소형차의 비중은 가장 낮은 반면, 대형차 비중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큰 차' 선호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1인당 GRDP(지역 내총생산)가 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고 고소득자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도 가장 적어 경제적 능력에 비해 대형차 선호 현상이 강한 것으로 지적됐다.

9월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광주에서 등록된 승용차(34만 1천306대) 가운데 2천500cc 이상 대형승용차는 3만8천872대로 전체의 10.4%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5월(3만3천944대)에 비해 14.5%(4

천928대) 늘어난 것이며, 5년 전인 2002년(1만7천626대)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광주의 '큰 차' 선호 추세는 국산 일반 승용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광주는 2천500cc 이상 국산 승용차가 1만8천45대에 달한다. 이는 국산차 전체의 7.0% 수준으로, ▲울산(6.4%) ▲대구(6.1%) ▲부산(5.8%) ▲인천(5.7%) ▲대전(5.4%)보다 대형차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반면 광주의 1천cc 미만 경·소형차는 1만8천761대로, 광주 승용차 전체의 7.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울산(10.4%) ▲인천(9.7%) ▲대전(9.1%) ▲대구(9.0%) ▲부산



(8.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는 지역경제의 척도인 통하는 GRDP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중부세 납부대상도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겉치레' 소비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된다.

2005년 현재 광주의 1인당 GRDP는 1천242만원으로, 전국 평

정권말 전남 대형사업 표류

F1·J프로젝트·서남권개발 등 부처간 떠넘기기 극성

12월 대선으로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관계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와 떠넘기기식 책임 회피로 인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개발도), 서남권개발사업, F1(포클러인) 대회 등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대

형 프로젝트들이 정권 말기 관리집단의 보신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에 휘말려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참여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 추진을 약속했던 사업들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열린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문광부 고위관계자는 F1 대회를 지원할 F1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F1 대회가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전남도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크게 실망했다. 결국 F1 특별법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쟁의 희생양이 돼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문광부의 이같은 태도는 전남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현안에 대해 주무 부처가 극히 관행적이고 보신주의적인 행태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유선호(영암·장흥) 의원은 "주무 부처에서 발벗고 나서도 시원함을 관에 문광부 관계자의 부정적인 의견에 기가 막혔었다"며 "이번 사례는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일각의 달갑잖은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에 따라 전남도는 F1 경주장 건설을 위해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간척지 우선 사용 승인을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 부처간 떠넘기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전남도의 간척지 우선사용 요청에 대해 각 부처 의견을 조율

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이관했다고 밝혔으나, 국무조정실은 간척지 우선 사용 건은 농림부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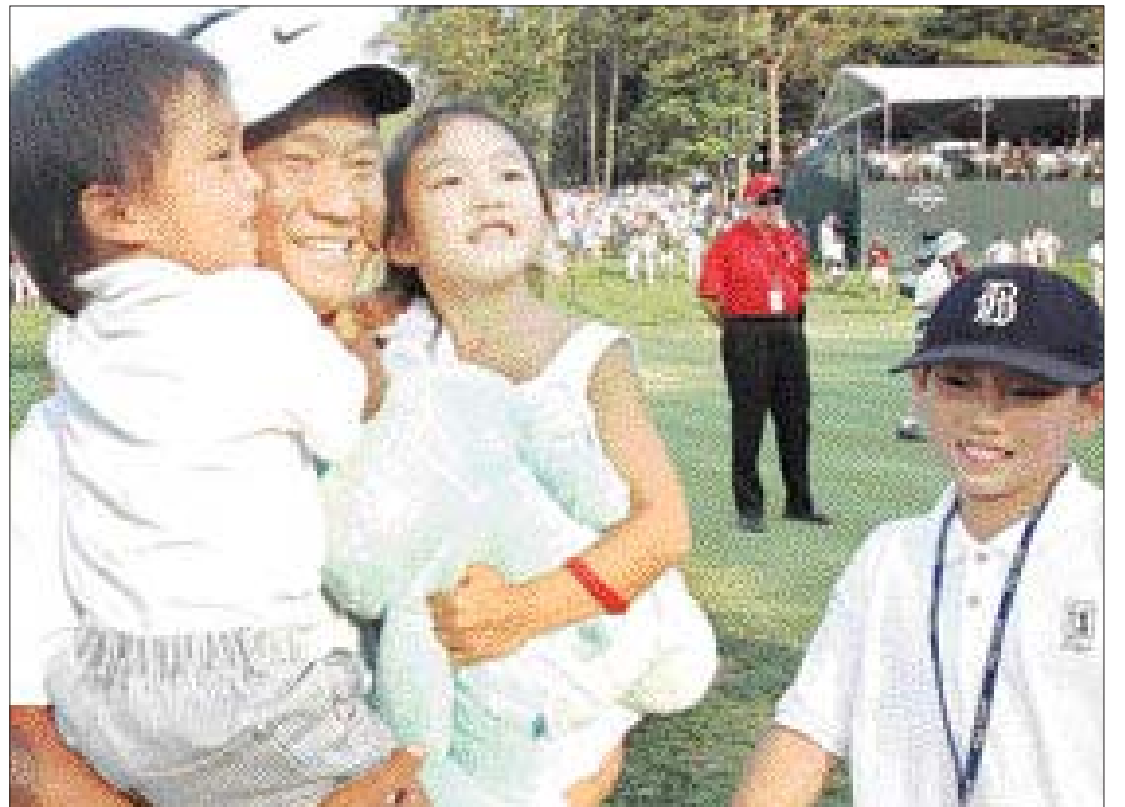
채일병(해남·진도) 의원은 "정부 의지가 있다면 간척지 우선 사용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이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J프로젝트 부지 확보를 위해 간척지 매입 지원예산 5천여억 원을 요청한 데 대해 문광부는 극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문광부는 관계 부처간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를 할 때 거론할 사안이며, 별도로 예산계획을 세울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

'완도 탱크' 최경주 시즌 2승

▶22면



최경주가 9일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콩그레스셔널골프장에서 열린 PGA투어 AT&T 내셔널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뒤 두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AT&T 내셔널 역전승...올 상금랭킹 4위

'완도 탱크' 최경주(37·나이키 골프)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벌인 잔치에서 우승,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경주는 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콩그레스셔널 골프장(파70·7천20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 271타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PGA 투어 통산 여섯번째 우승컵을 차지한 최경주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승 기록을 세웠고 시즌 상금 324만3천달러를 모아 상금 랭킹도 4위로 수직 상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감독 '가짜학위' 의혹 증폭 비엔날레재단, 규명 소극적

신정아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의 '가짜학위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신씨는 공동 전시감독에 임명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진상과악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재단은 9일 오전 한강수이사장 주재로 열린 직원 회의에서 '신 감독의 박사학위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만을 확인했

다. 재단은 핵심 논란인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이 문제는 학계의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재단이) 직접 신고수의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단은 지난 6일 예일대측에 신 감독의 학적조위를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공문이 회신되는 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해소하

는데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신 감독은 파리의 모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일대 동창회 '신씨 모른다'

신정아 감독의 자칭 예일대 박사학력은 거짓인 것으로 동창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장진성 서울대 조교수가 9일 전했다.

예일대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 교수는 이날 "오늘 오전 예일대 한인 총동창회 총무로부터 동창회 명단에 신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연습뉴스

우일백년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향산화제 보강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더위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과학 발달로 활성산소는 피로와 피부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유난히 더욱 거리는 울 여류!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E군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베타카로틴도 함께는 미인용 활성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비타민 E / 베타카로틴 / 아로나민 / 아로나민 씨 / 아로나민 씨 플러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피부가 좋아야
일하러, 살려라! 열매나 피로하겠어요

www.ildong.com